

MENA지역의 제조업 MEKA, 이집트



목 차

요 약 / 1

I. 제조업 현황 / 2

1. 이집트 제조업 최근 동향
2. 경제적 효과
3. 이집트 제조업 발전 현황

II. 제조업 경쟁우위 요소 / 9

1. 노동력 부분
2. 기타 이집트 특성 요소

III. 제조업 대표 분야 / 14

1.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2. 제약 산업

IV. 우리기업 진출전략 / 23

1. 제조업 향후 전망
2. 정부 정책 방향
3. 우리기업 전략

요 약

- 이집트는 중동·아프리카 지역 중에서 가장 건실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국가로 평가되고 있음
 - 거대 자본과 풍부한 노동력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이 탄력을 받았으며 투자 환경 개선으로 MENA(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내 유망한 투자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음
 - 이집트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석유화학과 식품, 제약, 시멘트, IT 분야에 집중되고 있음

- 제조업 경쟁우위 요소를 가지고 있음
 - 가용할 인력이 풍부하고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함
 - 이집트 정부는 1995년 WTO 가입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EU, 미국의 양대 시장을 비롯해 아랍권, 동남부 아프리카 등과도 FTA를 체결하였음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과 의약품 산업이 대표적인 제조업 산업임
 - 현재 이집트는 아프리카 지역 내 최대 자동차 생산국으로써 상용차와 개인 승용차 생산량이 지난 5년간 2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이집트 제약 산업은 BRICs 다음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산업 중 하나임

- 현지 생산을 통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집트 내수 시장을 공략함과 동시에 주변국(EU, 아프리카, 아랍권 등 이집트와 FTA를 체결한 경제권을 중심)으로의 수출 확대 등 이집트를 투자 거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I. 제조업 현황

1. 이집트 제조업 최근 동향

- '12/'13 회계연도¹⁾ 기준으로 이집트 산업에서 제조업은 32.4%를 차지하는 서비스업(51.2%) 다음으로 중요한 산업임
- 이집트 제조업은 '10년 기준으로 민간이 약 81%, 공기업이 약 19%를 차지하고 있음
 - 이집트에서는 '01년 9.11사태 이후 지역정세가 불안정해지고 '04년 외국인 투자유치가 급격히 감소하여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06년을 기점으로 많은 공기업이 민영화되었음
- 이집트는 중동·아프리카 지역 중에서 가장 견실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국가로 평가되고 있음
 - 이집트 걸프 지역의 오일 머니를 유치하기 위해 1974년 투자법을 제정한 것을 계기로 국내 제조업 부문을 크게 성장시켜 1970년대 초에서 1982년까지 연평균 제조업 분야 증가율이 10%대를 상회하였음
 - 국민 생활에 필요한 유가공, 음료 등 식품 가공 및 기초 면방직 등 섬유 산업 등 기초적인 제품은 자국에서 생산, 일부 제품들은 인근 국가들에 수출까지 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 하지만 이집트의 제조업 수준은 열악한 편이며 낮은 노동생산성과 비능률적인 기업경영으로 품질 면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1) 2012/2013 회계연도는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1일까지임.

- 이집트의 제조업은 단순한 조립이나 가공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제조업 기술 연구·개발(R&D),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모멘텀이 부족하고 노동생산성의 개선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집트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석유화학과 식품, 제약, 시멘트, IT 분야에 집중되고 있음
 - 석유화학의 경우 다국적기업들에 의한 대형 정유공장과 암모니아, 질소비료, 알킬벤젠, 폴리프로필렌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멘트와 요업 등은 주로 주식 취득에 의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중동·북아프리카(MENA : Middle East & North Africa) 지역 최대의 내수시장인 이집트는 9,0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겨냥한 식품 가공 분야에는 코카콜라, 펩시콜라, 켈로그, 네슬레 등 국제적인 식품회사들이 대거 진출해 있는 실정임
 - 제약 분야 역시 세계 10대 제약회사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요 기업이 진출해 있음
 - IT 분야로는 주로 미국기업에 의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IBM,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델컴퓨터, 오라클 등 거대 미국 회사들의 진출이 활발한 편임
- 한국의 대 이집트 제조업 투자는 전체 투자의 16%에 머물고 있어 72%를 차지하는 광업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함
 - 이처럼 제조업 분야에 대한 우리의 투자가 부진한 이유로는 우리 기업들의 제조업 진출 애로사항이 현지 문화관습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단기간에 해결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 한국의 주요 제조업 투자 기업으로는 '90년 LG전자(전자), '97년에 동일방직(직물), '02년에 Texchem(계면활성제), '04년 한국유나이티드(의약품), 두베라(직물), 샴스코(PVD 랩) 등이 있으며, '12년에 삼성전자가 TV 및 모니터 공장 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음

2. 경제적 효과

- '11/'12 회계연도 기준, 이집트 제조업은 전체 산업의 1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이집트 산업 중 제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임
 - 동 회계연도에 제조업의 성장률은 전년 회계연도 대비 0.7% 성장에 그쳤는데 이는 '11.1월 발생한 민주화 혁명에 따라 이집트 내수 악화 및 국내외 투자 위축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분석됨

< 이집트 산업 구조 >

(단위: %)

분야	비중	성장률	분야	비중	성장률
제조업	15.4	0.7	운송	4.3	2.8
전력산업	14.7	5.9	교육, 의료 서비스	4.1	2.8
농수산업	13.3	2.9	관광	3.9	2.3
추출산업	13.2	0.1	금융	3.8	2.2
도소매업	10.6	2.0	수에즈 운하	3.3	3.972
건설	5.3	3.3	부동산	2.8	3.2
통신	4.4	5.2			

주 : 2011/2012 회계연도 기준
 자료 : 이집트 중앙은행

- 이집트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경우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11.7월~'12.3월 기간 동안 전체 투자의 9.7%를 차지하고 있음

-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10/'11년 동기 대비 감소한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주화 혁명의 여파로 인해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이집트 산업 구조 >

구분	(2010/2011 회계연도) 2010년 7월~2011년 3월, (2011/2012 회계연도) 2011년 7월~2012년 3월 기준			
	2010/2011	비중(%)	2011/2012	비중(%)
총 FDI유입	7277.6	100.0	7124.9	100.0
석유	5065.9	69.6	4656.3	65.4
제조업	726.9	10.0	691.2	9.7
농업	25.6	0.3	80.4	1.1
건설	93.5	1.3	126.4	1.8
서비스	559.7	7.7	454.8	6.3
기타	806.0	11.1	1115.8	15.7

자료: 이집트 중앙은행, (단위: 백만 달러)

- 수출에서는 '11/'12 회계연도 기준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전체 수출의 45.5%를 차지하며 전체 수출 중 제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집트 수출시장 구조 현황 >

구분	2009/2010	2010/2011	2011/2012	비중(%)*
총 수출	23873.1	26992.5	26975.9	100.0
연료, 무기물 제품	10634.6	122605.1	13502.2	50.0
원자재	1272.6	1414.8	1170.7	4.3
반가공품	1624.8	2081.9	1943.4	7.2
가공품	10070.9	10850.2	10353.5	38.3
기타	270.2	40.5	6.1	0.0

* 2011/2012 회계연도 기준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이집트 중앙은행

- 총고용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2년 기준, 총 11.1%로 농수산업과 건설업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이집트 산업별 고용 비중 ('12년 기준) >

구분	총 고용 비중	남성	여성
농수산업	27.1	24.5	37.5
채광·채석업	0.2	0.2	-
제조업	11.1	12.8	4.3
전력산업	1.1	1.2	0.5
건설	11.8	14.7	0.4
도소매업	11.0	11.9	6.9
운송	7.0	8.5	0.8
숙박업	2.2	2.7	0.3
정보통신	0.9	0.9	0.8
물 공급(하수처리 포함)	0.7	0.8	0.3

자료: 이집트 통계청, (단위: %)

3. 이집트 제조업 발전 현황

- 과거 농업 국가였던 이집트는 19세기까지는 제조업 발전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음
- 하지만 20세기 들어 거대 공장과 은행이 설립되면서 정부는 제조업 육성에 큰 관심을 갖고 제조업 육성 정책을 실시하게 됨
 - 이집트 정부는 1973년, 정책적 슬로건인 'Made in Egypt'를 도입하면서 현지 물품 생산을 주력하기 시작하였고, 개방 정책을 추진하여 철강, 석유, 화학 산업과 같은 중공업이 대두하였고 제조업 부문의 민간 기업과 투자자들이 등장

- 21세기 들어 정부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부흥 정책을 적극 시행함
 - 내부 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 증진을 힘쓰면서 경제 부흥과 투자 사업 환경 조성 및 제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개혁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함

- 이집트는 거대 자본과 풍부한 노동력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이 탄력을 받았으며 투자 환경 개선으로 MENA(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내 유망한 투자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음.
 - 아프리카 지역에서 비교적 발달된 수송인프라로 국내 및 세계 시장의 유통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아연, 납, 철, 니켈, 텅스텐 등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제조업 기반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
 - '03년부터 이집트는 EU와의 협력을 통해 이집트 제조업 현대화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이집트 생산품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였으며 산업부문 수출량 증가 및 고용 기회 창출로 전반적인 산업화 개발을 목표로 하였음
 - '06년부터 산업현대화 센터(Egyptian Modernization Industry Center)를 설립하여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

- 이집트는 '05~'10년 동안 산업 연합회와 은행 등의 참여로 1,000여개의 공장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이 추진되었으며 투자 금액은 총 7,000억 이집트 파운드(약 1,000억 달러)에 달하였음
 - 동 기간 동안 제조업 부문 성장은 5%에서 9%로 확대되었고 수출은 180억 이집트 파운드에서 420억 이집트 파운드로 증가하고 신규 일자리는 약 150만개가 창출되었음

- 이집트 정부는 제조업 발전이 이집트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임을 인지하고 미래 산업 발굴 및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들어, 이집트는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를 주축으로 미래 Vision을 발표하는 등 제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도입하는 추세임
- 이집트 통상산업부는 미래 20년 Vision 제시를 통해 2025년까지 이집트를 MENA 지역 내 제조업 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임

II. 제조업 경쟁우위 요소

1. 노동력 부분

- 이집트는 실질 실업률이 20%를 상회하고 청년 실업률은 40%대를 육박하고 있는 등 가용한 인력이 풍부하고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일용직이나 단순 노동자의 경우 월 500 이집트 파운드(약 71 달러) 이하의 저임금으로도 채용이 가능한 수준임
 - 이집트 임금은 공기업과 민간기업, 숙련공과 비숙련공,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간 격차가 상당히 큰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일반적인 임금 수준은 비숙련공이 월 150~200 달러 정도이며, 숙련공은 월 200~350 달러 수준을 보이고 있음. 현지 일반 기업체의 경우 일반 근로자는 월 120~300 달러, 초급 관리자는 월 400~1500 달러, 고급 관리자 및 경영진은 월 1,500~5,000 달러 수준임
- 현지 대형 기업이나 외국계 회사 근로자의 경우 일반 기업체보다 급여 수준이 높은 편으로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갖춘 고급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것이 주된 이유임

< 이집트의 대형기업, 외국계 기업 근로자 월 급여 >

직종	월 급여 (EGP)
Sales and Marketing Director	35,000~40,000
Financial Director	30,000~35,000
Human-resources Director	30,000
Manager	15,000~20,000
Production manager	10,000~12,000
Accountant	5,000~10,000
Personal assistant to director	7,000
Secretary	4,000

주 : 1달러 = 7 EGP

자료 : Pauline D'Arcy Human Resources and Recruitment Consulting

- 이집트의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에도 불구하고, 낮은 노동 생산성은 문제점을 지속 지적되고 있음
 -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에 따르면, 이집트 노동 생산성은 인근 튀니지의 61%, 터키의 34%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2. 기타 이집트 특성 요소

- 이집트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거대 시장인 EU 시장과 오일머니가 풍부한 아랍권, 외부에서의 접근이 어려운 아프리카 시장의 길목에 위치해 있는 등 지리적으로 매우 전략적인 위치에 놓여 있음



- 또한 대서양과 인도양을 잇는 수에즈 운하 등 지정학적으로 이집트는 물류의 중심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비행기로 3~4시간 거리에 주요 교역 국가들이 위치해있어 운송에 따른 물류 이동 비용 및 시간 절약이 용이한 편임
- 이집트 정부는 1995년 WTO 가입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EU, 미국의 양대 시장을 비롯해 아랍권, 동남부 아프리카 등과도 FTA를 체결하였음

< 이집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현황 >

명 칭	발효일	주요 내용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 (COMESA)	'94.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 최초이자 최대의 경제공동시장 (인구3.8억명) · 회원국 : 동남아프리카 21개국 - 남아공은 옵저버 · 21개국 중 11개국은 상호 무관세
범아랍자유무역협정 (PAFTA)	'98.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 : 아랍연맹 17개국 -이집트는 걸프 7개국과 별도 협정 체결 · 국가별 관세수과 및 면제대상 상이
EU-이집트 연합협정 (EU/EGYPT ASSOCIATION AGREEMENT)	'04.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개 EU회원국과 이집트 간 FTA · 이집트, 대EU 공산품 무관세 수출 -EU 15개 회원국, '19년까지 4개 품목군에 걸쳐 점진적 인하 및 철폐 (예) 자동차 관세는 '10~'19간 매년 10%씩 인하 · 농산품 일부 쿼터해제 및 관세인하 또는 철폐
QIZ 협약 (Protocol on Qualified Industrial Zone)	'05.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집트, 이스라엘, 미국 3국간 협약 · 이집트가 이스라엘 원부자재 10.5% (11.7%에서 '08.1.1부로 10.5%로 변경) 이상, 국내산 원부자재 35%이상 사용 시 대미 무관세 수출 가능 · 이집트 내 QIZ 수혜기업은 500여개, 2011년 이집트 QIZ의 대미 수출액은 103억불 * USTR은 이집트 내 3개의 QIZ(카이로, 알렉스, 수에즈)를 지정하였고, '05.12월 4번째 QIZ로서 중앙델타지역을 지정한 바 있음
Agadir 협정	'06.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 : 이집트, 요르단, 튀니지, 모로코 · 농산품에 대한 즉각적인 관세 철폐 * EMFTA내에서 남남협력을 통해 EMFTA 통합을 가속화하는 장치로 간주, EU로부터 수혜
이집트-터키 FTA	'07.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터키 수출 : 협정발효 즉시 무관세 · 대 이집트 수출 : EU-이집트 FTA에 준해 4개 품목군에 따라 2020년까지 점진적 관세 인하 및 철폐
이집트-EFTA FTA	'07.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FTA: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 · 대EFTA 수출 : 16개 품목을 제외하고 발효 즉시 관세철폐 · 대 이집트 수출 : '20년까지 4개 품목군에 따라 점진적 인하 및 관세 철폐

이집트-남미공동 시장 (MERCOUR)	'10.8.2 서명 ('12.9.8 현재 미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RCO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 육류, 밀, 옥수수 등 : 대해 즉시 관세면제 · 우유, 산업제품 : 4년 내 관세 면제 · 기타 협상 품목 : 8~10년 후 관세 면제
아프리카 대자유 무역협정 (African Grand FTA)	'11.6.12 26개국 정상간 창설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ESA, SADC(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EAC(동 아프리카공동체)간 FTA · 인구 5.5억명으로 아프리카전체인구의 57% -아프리카 전체 GDP의 58%(8,300억불)
아프리카 FTA	논의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12월 가나 아크라개최 아프리카 통상장관 회의 시 2017년까지 자유무역지대 창설 및 '19년 까지 관세동맹 달성 로드맵에 합의 * 이집트는 동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적극적

- 이집트 제조업 육성 정책은 크게 수출 확대와 고용 증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집트 제조업의 육성 전략은 전체 3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 (1단계) 단기간의 수출 및 고용 창출 확대를 목표로 하며, 재래 기술을 바탕으로 한 노동 집약적 산업 육성에 주력
 - (2단계) 제조업 관련 지원 기관 설립 및 효율성에 초점을 두며 중간 기술수준에 도달하여 생산 및 수출 관련 기술 혁신에 주력
 - ((3단계) 장기적 단계의 목표를 설정, 첨단 기술 생산 및 수출 확대에 주력
- 이집트는 국가 주도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 정책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제조업 육성 정책이 진행될 전망이다
- 이집트는 '25년까지 MENA 지역의 제조업을 이끌며 높은 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한 주요 수출 허브 국가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 제조업 육성 전략 수립 및 이행을 위한 Vision은 현 이집트의 기술, 인프라, 국제시장에서의 입지, 자원을 토대로 한 현실적이며 구체적으로 제시됨
- 이를 통해 현 제조업 부문의 약점 진단 및 현존하는 강점 및 산업 성장의 기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시 되었으며, 대표적인 제조업 육성 전략은 다음과 같음
 -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와 수출 육성 계획을 바탕으로 제조업 부문의 생산 확대 추진
 - 산업 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한 국가 정책 및 전략을 통해 산업 생산성 향상 추진
 - 자원 기반 및 재래 기술을 통한 현 단계의 제조업 상황에서 미래 첨단 기술 산업 성취로의 점진적 발전 추진

Ⅲ. 제조업 대표 분야

1.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 개황

- '12년 이집트 자동차 생산량은 기관마다 측정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BMI에 따르면 10만 9,238대를 생산하고 19만 4,740대를 판매한 것으로 추산됨
- 이는 이집트 자동차 산업이 '11년의 민주화 혁명 이후의 침체기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집트 자동차 생산량 동향 >

(단위 : 대)

구 분	2011	2012e	2013f	2014f	2015f	2016f	2017f
총 생산대수	81,731	109,238	113,810	121,374	130,642	144,977	157,705
- 승용차	53,072	73,452	76,390	81,584	87,377	96,937	105,489
- 상용차	28,659	35,786	37,420	39,789	43,266	48,040	52,217

주 : e=BMI 측정치, f=BMI 전망치
 자료 : OICA, BMI

- 현재 이집트는 국제 자동차 관세를 0~40%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WTO, GATT 규정에 따라 '19년까지 수입완성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수입관세 인하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음.
- 이집트 자동차 부품협회(EAFA)에 따르면,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관세는 차등 적용될 것으로 알려짐
- 이집트 수입 차량은 향후 'EU 협정(AA)'에 따라 EU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차량은 매년 10%씩 관세를 인하해 '19년에는 관세 철폐에 이를 예정임

< 완성차 수입관세 비교 >

(단위 : %)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완 성 차	1.6 이하	유럽산	28	24	20	16	12	8	4	0
		국내산	40	40	40	40	40	40	40	40
	1.6 초과	유럽산	94.5	81.0	67.5	54.0	40.5	27.0	13.5	0
		국내산	135	135	135	135	135	135	135	135

자료 : 이집트 통상산업부

주 : CKD(현지 조립생산) 관세 : 7~10%

- 하지만 이집트 정부는 자동차 수입을 억제하고 자동차 수출을 확대하고자 현지 조립생산 차량의 비용절감계획을 수립함
 - 자동차 부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축소하는 한편,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GATT, EU 협정 등에 따른 수입완성 차량 관세 철폐 실시도 연기될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부품 산업의 경우 부품산업 육성정책은 '86년 대통령령 제 351호로 제정되었으며, '00년도에 수정된 대통령령 제 429호를 통해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며 현지 원자재 및 부품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00년도에 제정된 대통령령 제 429호의 제 6조는 자동차부품 산업의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현지 부품을 활용하지 않고 해당 부품을 수입하여 현지 조립, 판매 할 경우 (CKD) 완제품(CBU)으로 수입 된 제품관세에 90%를 적용. 즉, 현지 부품이 포함되지 않은 관련 부품의 수입 및 현지 조립, 판매의 경우 완제품으로 수입할 시에 비해 10%의 관세 할인 혜택 부여
- ◆ 부품의 현지 비율이 30~40% 충족 했을 경우 완제품(CBU)에 비해 33~44%의 관세 할인 혜택을 부여. 즉, 관세 할인 혜택은 현지 부품 포함율의 1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음(예 110%×30% = 33%)
- ◆ 부품의 현지 비율이 60% 포함되었을 경우 각 부품별 다른 관세가 적용 됨. 이 경우 (부령에 따르면 승용차에 한해 현지 비율 40%까지 허용) 현지 조

립, 판매(CKD)의 경우 26~28% 평균 관세율이 적용됨. 또한 다른 적용 방법으로 부품의 현지 비율이 40~60% 포함되었을 경우 완제품(CBU)에 비해 46~69%의 관세 할인 혜택을 부여. 즉, 관세 할인 혜택은 현지 부품 포함율의 115%의 할인을 적용 받아(예 115%×40% = 46%) 적용 받는다. 이 경우 CKD는 31~54%의 관세가 적용되며, 제조업체는 위의 두 가지 관세 적용법 중 선택권을 가짐.

- ◆ 한편, 부품의 현지 비율이 60%를 초과할 시 현지 부품율의 120%의 할인 혜택이 주어 짐. 이는 완제품(CBU)에 비해 최소 72%의 관세 할인 혜택을, 최대 90%의 완제품(CBU)대비 관세할인을 부여(예 120%×60% = 72%)

< 이집트 현지 부품 사용 비율 대비 관세 할인 혜택 >

현지 부품 사용 비율	관세 할인 혜택 비율
30% 이상 40% 미만 사용	현지부품 사용 비율의 110%
40% 이상 60% 미만 사용	현지부품 사용 비율의 115%
60% 이상 사용	현지부품 사용 비율의 120%

자료 : 대통령령 제429호 부칙 제6조

□ 생산 현황

- 이집트 자동차 산업은 현지 생산 차량과 과 수입 차량 두 부분으로 양분화 되어 있으며 완제품 수입은 전체 판매의 35%를 차지하고, 65%는 현지 생산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집트 제조업체는 완성차에 부과되는 높은 관세로 인하여 부품 등을 수입해 현지에서 조립판매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음
- '80년 후반까지 국영 기업인 Nasco(El Nasr Automotive Manufacturing)가 이집트 자동차 생산을 독점하였으나, '92년 이집트 무역 자유화 조치 이후 Mercedes-Benz, Fiat, Renault, Toyota 등 세계 유명 자동차 업체들이 이집트 내 진출하여 공장 설립을 시작하였고 외국계 기업의 대거 진출로 이집트 자동차 산업은 대폭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음

< 이집트 현지 CKD 조립공장 현황 >

회사명	브랜드	주소	홈페이지
Arab American Vehicles (AAV)	Cherokee	The 4.5 Km - Cairo - Suez Road	www.aav.com .eg
Egyptian German Automotive (EGA)	Mercedes	4th Industrial Zone - 6 October City	
El Nasr Automotive Manufacturing Co. (NASCO)	Fiat & Florida	Wady Hof, Helwan, Cairo	
Automotive Engineering Company	Seat	Wady Hof, Helwan, Cairo	www.smg.com .eg
General Motors Egypt	Chevrolet	6 Of October City, Giza	www.gmegypt .com
Ghabbour Group	Hyundai	Alexandria Desert Road, Km 28, Cairo	www.ghabbourauto.com
Gorika Egypt		5 Gamal Abd EL Nasser St., Ismailia Desert Road, Km 19, Cairo	
International Automotive Manufacturing		Km 22 First of Cairo - Ismailia Desert Road Cairo	
JAC	Mitsubishi	179 Airport Road, Heliopolis - Cairo	www.jpg-egypt.com
Manufacturing Commercial Vehicles (MCV)	Mercedes	24th Km Ismailia Desert Road	
Nissan Motor Egypt	Sunny	3rd Industrial Zone, 6th October City, Giza	
Peugeot Egypt	Peugeot	4 Wadi El-Nile St., Mouhandessin, Giza	
Suzuki Egypt	Suzuki	131 El-Tahrir St., Doki, Giza	
Watania Automotive Manufacturing Co. (WAMCO)		69 Al Nasr St., New Maadi, Cairo	
Fiat Auto	Fiat	5 Tnata St. Mouhanessin, Giza	
Bavarian Auto Group	BMW	Katamia, Ring Road-Maadi, Direction of Maadi- Cairo	www.bmw-eg .com

Lada Egypt	Lada	35 Obour Tower, Salah Salem Road, Nasr city,	ladegypt@hotmail.com
------------	------	--	----------------------

자료 : 무역관 자체 수집

□ 해당 분야 성장 잠재력

- 이집트는 '11년 대규모 민주화 혁명 이후 자동차 판매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대출이 제한되어 자동차 판매 확대는 제약이 있는 실정임
 - 이로 인해 대다수의 외국계 자동차 생산업체는 운영시설을 축소하고 있음
- 현재 이집트는 아프리카 지역 내 최대 자동차 생산국으로써 상용차와 개인 승용차 생산량이 지난 5년간 2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EU 및 지역 협력을 통한 관세 완화 및 지리적 이점으로 이집트는 산업 수출의 허브국가로 발돋움하였으며 점진적인 관세 철폐로 향후 이집트 자동차산업은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의 중심 지역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됨
 - 이집트 최대 자동차 부품 회사인 SMG Engineering에 따르면 지난 '11년 민주화 혁명 이후 단기간에는 시장 침체가 불가피하지만 향후 A/S(After Service)용 자동차 부품 시장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혁명 이후 신차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부품 시장이 반사이익을 통해 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우리기업의 진출 현황

- '08년 11월 현대자동차는 두바이에 소재한 중동아프리카 본부를 분리하여 이집트에 아프리카 지역 본부를 개설, 현지 최대 자동차 조립생산 업체인 GB Auto와 CKD 방식으로 일부 차량을 생산하고 있음

- '10년 현대모비스가 알렉산드리아 경제자유구역(SEZ)에 현대기아차 A/S 부품 시장 공략을 위해 물류창고를 개설하는 등 우리 기업의 대 이집트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99.10월 이후 반덤핑 수입규제가 부과된 타이어 품목은 지난 '09.10.2 일부로 규제가 종료되어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등 한국산 타이어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있음
- 타이어의 경우 현지 생산 제품의 비중이 약 10%에 불과하고 수입산 제품 점유율이 90%에 육박하는 등 대부분의 현지 수요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현지 타이어 딜러에 따르면, 금호 및 한국 타이어 등 한국산 타이어의 점유율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산 타이어는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2. 제약 산업

□ 개황

- 이집트 제약 산업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BRICs 다음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산업 중 하나임
- 이집트 제약 제조업체들은 제약 생산 규모 확대뿐 아니라 타 아랍국가로 수출까지 하고 있으며, '12년 기준 이집트 의약품 총 지출은 약 22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
- 이집트 제약 산업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되는 장외판매량(OTC : Over the Counter Sales)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12년 기준 OTC 의약품 지출 규모는 약 4억 2800만 달러에 달했음

- OTC 의약품의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이집트 보건부가 OTC 의약품의 가격을 통제하고 있어 이집트 현지 업체들이 이윤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 등 OTC 시장 성장의 주요 제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집트 의약품 산업 동향 및 전망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판매 (US\$십억)	1.85	1.85	2.22	2.48	2.70	3.66	4.17
- 증가율 (%)	19.3	1.5	20.1	11.4	8.9	14.4	13.8
- 1인당 지출액 (달러)	22.9	22.8	26.9	29.5	31.6	41.5	46.5

자료: BMI, 이집트 보건부, *전망치

□ 생산 현황

- 이집트 제약분야는 중동에서의 최대 인구 보유와 잠재적인 시장 기회로 인해 로컬 회사와 글로벌 기업 간 매우 치열한 경쟁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외국계 제약회사들은 이집트 제약 산업의 총 65%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중 30%는 현지 제조공장을 통해 생산하고 나머지 35%는 이집트 현지 기업과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하청을 주고 있음

< 이집트 Top 10 제약회사 현황 >

기업명	국적	점유율(%)
GSK	영국	8.99
PHARCO	이집트	7.28
NOVARTIS	스위스	7.04
AVENTIS	인도	5.70
EIPICO	이집트	5.60
PFIZER	미국	4.20
AMOUN	이집트	4.18
SERVIER	프랑스	2.61
SIGMA	이집트	2.41
EVA	이집트	2.41

자료 : 이집트 바이어, 무역관 보유자료 등 종합

< 이집트 Top 10 현지(로컬) 제약회사 현황 >

기업명	주요 생산 품목	점유율(%)
PHARCO	FAWAR COLA (소화제) 등	7.28
EIPICO	CAPOTRIL (고혈압제) 등	5.60
AMOUN	MOSEDIN (알레르기 치료제) 등	4.18
SIGMA	Pred Forte 1% (알레르기 치료제) 등	2.41
EVA	APHTHTAB TABLETS (아프타성 궤양 치료제) 등	2.41
MUP	SPIREX (항감염제) 등	2.20
SEDICO	LORATIN (항히스타민약) 등	1.51
MULTIAPEX	APEXIDONE (항정신병 치료제) 등	1.39
ADWIA	MYOGREL (항혈소판제) 등	1.35
HIKMA	AMOCLAN (항감염제) 등	1.14

자료 : 이집트 바이어, 무역관 보유자료 등 종합

□ 의약품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

- 이집트 정부는 '09년에 의약품 가격 절차를 개정
 - 주 내용으로는 국민의 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매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일부 글로벌 제조업체들은 정부의 이러한 가격 정책에 큰 불만을 품고 있으며, 이집트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타 개발도상국 시장과 유사한 가격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집트 로컬 제조업체들은 정부의 가격 정책을 반기고 있는 실정임
 - 가격 경쟁력으로 로컬 기업이 해외 글로벌 기업 대비 시장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임
 - 이집트 정부 정책은 수입에 의한 의약품 시장 비중을 축소하고 현지 생산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 이집트 정부는 모든 이집트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 중에 있음
 - 건강보험 제도는 정부 투자뿐 아니라 세계은행과 유럽연합(EU), USAID 등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시설 선진화 정책(Health Sector Reform Project)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음
 - 하지만 이집트의 인구 증가 추세와 정부의 재정악화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음

IV. 우리기업 진출전략

1. 제조업 향후 전망

- 이집트는 20세기 들어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에 따라 현지 제조업 개발과 생산에 주력하기 시작하였으며, 경제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중공업 산업이 대두되고 민간 기업과 투자자들의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음
- '11년 대규모 민주화 혁명 이후 이집트는 정치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반(反)정부 시위의 확산으로 정정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나, 중동에서의 최대 인구 보유, 지정학적 이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이집트 제조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또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잇는 지정학적 전략성과 더불어 주변 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및 확대를 통해 정치적 안정화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제조업 수출 잠재성 및 국내외 투자자들의 대 이집트 제조업 진출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

2. 정부 정책 방향

- 이집트 정부는 노동자를 위한 기술 이전 및 훈련 정책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노동 생산성 향상을 통해 제조업에 종사할 기술직 노동자 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집트 정부는 제품 혁신, 생산 과정 개선, 기술 등을 필수 육성 요건으로 설정하여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이집트는 장기적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진보된 기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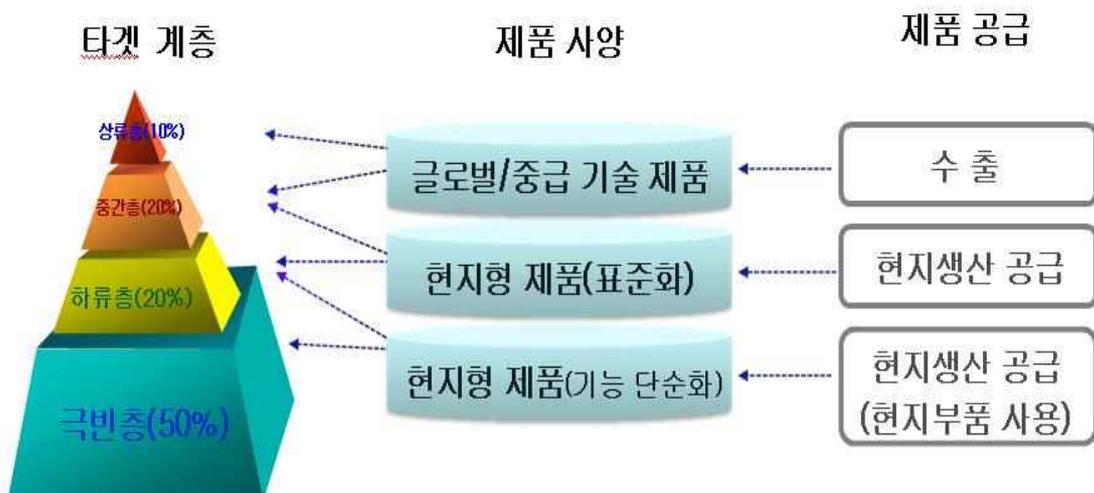
- 이집트는 세계 시장에서의 기술 이전 및 혁신,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기술이전 센터(TTC : Technology Transfer Center)를 설립하는 등 노동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제조업의 전체적인 기술력 확보 노력에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3. 우리기업 전략

□ (1단계) Mid Tech 제품 진출

- 이집트 산업발전 단계에 맞는 중급기술(Mid-Tech) 제품 공급을 추진
- 한국산 Mid-Tech 제품은 선진국 제품 대비 가격경쟁력이 높고, 경쟁국 제품(중국 수입 및 이집트 현지 생산) 대비 품질경쟁력이 높아 차별적 경쟁 우위 보유
- 주요 진출 대상 분야로는 기계류(섬유기계, 공작기계, 농기계 등), 부품·소재류(자동차부품, 기계설비부품, 철강류 등) 및 내구재 생활용품(가전제품, 냉난방 기기 등)이 있음

< 수출형태로 진출 가능한 중급기술 제품 >



□ (2단계) 현지 투자진출 및 소비재 공략

- 시장 잠재수요 및 EU와의 AA효과 가시화 대비, 현지 투자진출이 필요. 투자진출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중간이하 계층, 소비재 시장을 적극 공략
- 특히, 현지 생산을 통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집트 내수 시장을 공략함과 동시에 주변국(EU, 아프리카, 아랍권 등 이집트와 FTA를 체결한 경제권을 중심)으로의 수출 확대 등 이집트를 투자 거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자동차부품 분야) 완성차와 조립차의 동반 진출전략 구상 필요

- 이집트 높은 완성차 수입 관세(1.6이하 40%, 1.6이상 135%)를 감안, 소형차는 완성차 형태로, 중형차는 CKD 부품 공급 및 현지 조립을 통한 진출이 바람직
- 이집트 소득수준과 브랜드 및 품질에 따른 제품 구매 현상이 젊은층과 고소득층 소비자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중형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형차 위주의 현지 조립생산(CKD)을 통한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자동차부품, 소모성 부품 및 A/S용 부품을 타깃으로 진출 확대

- 이집트에서 한국 신차 점유율이 높은 점(약 한국산 신차 점유율 : 35~40%, 2012년 기준)을 고려할 때, 소모성 자동차부품 및 A/S 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이집트의 노후차량 비중을 감안할 때 노후차량 유지를 위한 A/S용 저가 부품시장 역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이집트 유력 자동차부품 수입 딜러인 SMG Engineering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집트 민주화 혁명 이후 정정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위축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신차 구입보다는 A/S용 부품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아울러,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집트 자동차 현지부품 조달비율 확대 추세에 따라 외국기업의 현지 생산설비 투자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

□ (제약 분야) 선진국 인증 필요

- 이집트 대부분의 의사 및 소비자들은 유럽 및 미국산 제품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집트 시장에 진출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인증이 필요함
- 통상적으로 이집트 정부의 의약품 등록을 위해서는 미국 FDA와 같은 선진국 인증 획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함

□ 현지 에이전트 확보

- 이집트 의약품 시장의 진입 과정은 매우 복잡한 절차로 구성되어 있음. 이는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크게 개입하고 있는 이유에서 비롯되는데, 이로 인해 초기 진출 시 공공입찰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대 정부 네트워크가 좋은 현지 에이전트 물색을 통해 입찰을 하는 것이 초기 진출 시 바람직하며, 현지 마케팅 활동을 대행하게 하여 지속적인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이 필요

□ 현지 생산시설 구축

-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이집트 시장은 높은 인구 증가율과 MENA 지역에서 최대 인구를 보유(약 9,000만 명)한 향후 잠재적인 시장 가치가 매우 큰 시장으로 분류할 이에 현지에 직접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하나의 시장 진출 방법이 될 수 있음
- 이집트는 제약업계의 투자 제한이 없으며,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을 활용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장임

2013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GMR (Global Market Report)

번호	제목	발간일자
13-001	오바마 재선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2013.1
13-002	2013년 1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3.1
13-003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공작기계 (머시닝센터) -	2013.1
13-004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기타골프용품 -	2013.1
13-005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안경테 -	2013.1
13-006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폴리에스터 단섬유 -	2013.1
13-007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폴리프로필렌 테이프 -	2013.1
13-008	선진국의 미래산업 육성정책	2013.2
13-009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광케이블 -	2013.2
13-010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기타전동공구 -	2013.2
13-011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기타컴퓨터주변기기 -	2013.2
13-012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펌프 -	2013.2
13-013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 및 시사점	2013.2
13-014	한-콜롬비아 FTA 효과 및 활용방안	2013.2
13-015	떠오르는 이라크 재건설장을 선점하라	2013.2
13-016	주요국 환율변동에 따른 해외시장 동향과 진출여건	2013.2
13-017	엔저하의 수출 경쟁력 현황 및 전망	2013.2
13-018	한미 FTA 발효 1주년, 대미 수출 성과 분석	2013.3
13-019	일본의 대인도 진출전략 및 대응방안	2013.3
13-020	독일 직업교육 훈련제도 현황 및 시사점	2013.3
13-021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주요 시장 동향 <기타 무선통신기기>	2013.3
13-022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플라스틱 가공제품 -	2013.3
13-023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편직물 (인조섬유제) -	2013.3
13-024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는 멕시코	2013.3
13-025	인도의 CSR 정책과 시사점	2013.3
13-026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유리 저장 용기 -	2013.3
13-027	미국-EU FTA 추진현황과 향후 시사점	2013.3
13-028	日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 현황 및 시사점	2013.3

13-029	2013년 2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3.4
13-030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X선 및 방사선기기부품 >	2013.4
13-031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기초화장품 -	2013.4
13-032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합성수지·합성고무 -	2013.4
13-033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밸브·기타기계류 -	2013.4
13-034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시장동향 및 진출방안 <스키 헬멧>	2013.4
13-035	Post Chavez, 변화와 전망	2013.4
13-036	2013년 美 USTR 무역장벽보고서 평가 및 시사점	2013.4
13-037	한·터키 FTA 10대 수출 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2013.4
13-038	최근 대한 수입규제 동향과 향후 전망	2013.4
13-039	Putin 취임 1주년 경제 진단 및 전망	2013.5
13-040	유럽 온라인 유통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 서유럽편 -	2013.5
13-041	유럽 온라인 유통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 동유럽·북유럽편 -	2013.5
13-042	미얀마 경제제재 완화 1년과 향후 전망	2013.5
13-043	핀란드 창업·재취업 프로그램 현황 및 시사점	2013.5
13-044	日 엔고극복 사례가 주는 엔저원고시대의 시사점	2013.5
13-045	CIS 대형 유통망 현황 및 진출 방안	2013.6
13-046	기업에 공유가치를 입혀라~창조경제를 만든 해외기업의 CSV 사례~	2013.6
13-047	방글라데시 의류산업 사업환경 변화와 시사점	2013.6
13-048	호주 자원개발 현황과 진출전략	2013.6
13-049	2013년 3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3.6
13-050	한-EU FTA 2주년 성공사례 및 주요 바이어 반응조사	2013.6
13-051	2013년 하반기 지역별 수출입 전망과 시장여건	2013.7
13-052	북미세일가스 개발 동향 및 한국기업 진출전략	2013.7
13-053	'Rich Africa, Blue Africa' - 경제통상 협력을 통한 아프리카 진출 확대 방안	2013.8
13-054	북미 온라인 유통시장 진출방안 - 미국편 -	2013.9
13-055	북미 온라인 유통시장 진출방안 - 캐나다편 -	2013.9
13-056	독일 메르켈 총리 재집권에 따른 정책 방향 및 시사점	2013.9
13-057	태평양동맹 현황 및 활용전략	2013.9
13-058	2013년 4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3.10
13-059	유럽 M&A 시장 동향 및 진출방안	2013.10

13-060	일본경제 및 한일협력 확대 방안	2013.10
13-061	日 아베노믹스 실시성과 중간점검 및 시사점	2013.10
13-062	세계 경영환경을 바꾸는 혁신 : Reverse Innovation	2013.10
13-063	신흥국 프랜차이즈 시장동향과 진출방안(아세안편)	2013.11
13-064	신흥국 프랜차이즈 시장동향과 진출방안(중남미편)	2013.11
13-065	신흥국 프랜차이즈 시장동향과 진출방안(중동편)	2013.11
13-066	신흥국 프랜차이즈 시장동향과 진출방안(CIS편)	2013.11
13-067	2013 칠레 신정부 출범과 향후 전망	2013.11
13-068	2014년 지역별 수출입 전망 및 시장여건	2013.12
13-069	떠오르는 신흥공업국, 베트남	2013.12
13-070	기술로 빛은 특화된 제조국, 이스라엘	2013.12
13-071	유럽 제조업 경쟁력 2위, 폴란드	2013.12
13-072	MENA지역의 제조업 MEKA, 이집트	2013.12
13-073	개방으로 눈뜬 제조업, 인도	2013.12
13-074	신흥국 온라인 유통시장 동향과 진출방안-필리핀	2013.12
13-075	신흥국 온라인 유통시장 동향과 진출방안-싱가포르	2013.12
13-076	신흥국 온라인 유통시장 동향과 진출방안-인도네시아	2013.12
13-077	신흥국 온라인 유통시장 동향과 진출방안-터키	2013.12
13-078	신흥국 온라인 유통시장 동향과 진출방안-바르샤바	2013.12

□ KOCHI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13-001	대만시장에서 한류 활용하기	2013.1
13-002	[중국 석학에게 듣는다] 2013 중국 경제 전망	2013.2
13-004	中國寶庫-양회시리즈	2013.5
13-005	중국을 움직이는 파워엘리트 400인 (Who's who in China's Leadership)	2013.6
13-006	중국 온라인쇼핑 시장현황과 히트상품 분석	2013.8
13-007	중국 중서부 투자 우대산업 목록	2013.9

□ KOTRA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13-001	해외 주요국 투자인센티브 현황 및 사례조사	2013.1

13-002	외국인을 위한 법인설립 안내	2013.1
13-003	Guide to Business Establishment in Korea	2013.1
13-004	2012년도 북한의 대외교류동향	2013.2
13-005	GCF시대에 대비한 세계그린프로젝트 수주방안	2013.3
13-006	국가HR 개선 방안 연구	2013.3
13-007	2009~2012 KOTRA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성공사례집	2013.3
13-008	2013 외국인투자 가이드	2013.4
13-009	2013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참가업체 디렉토리	2013.5
13-010	국별 해외전시회 가이드	2013.5
13-011	2013 이라크-요르단 경제통상사절단 종합 결과 보고서	2013.5
13-012	2012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2013.5
13-013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2012	2013.5
13-014	엔저가 일본의 對한 투자에 미치는 영향	2013.5
13-015	세계 주요국 전력시장 현황	2013.5
13-016	미얀마 투자실무가이드	2013.5
13-017	2013 외국인투자상담 Q&A	2013.5
13-018	2012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13.5
13-019	Global Green Hub Korea 2013 결과보고서	2013.5
13-020	2013 글로벌취업창업대전 결과보고서	2013.6
13-021	중소기업을 위한 온라인 수출 마케팅 가이드	2013.6
13-022	이것이 글로벌 명품전시회다	2013.6
13-023	2013 Doing Business in Korea	2013.6
13-024	러시아 프로젝트 진출 가이드	2013.6
13-025	유럽 비즈니스 워크 개막 세미나 (공공조달 진출 전략)	2013.6
13-026	브라질 태양광 프로젝트 예비조사 보고서	2013.6
13-028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3 요약 번역본 (국제가치사슬: 성장을 위한 투자와 무역)	2013.7
13-029	2013 전략적제휴 안내서	2013.8
13-031	글로벌 중소기업, DNA부터 다르다	2013.8
13-032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전력인프라 현황 및 진출방안	2013.8
13-033	2013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결과보고서	2013.8
13-034	멕시코 투자실무가이드	2013.8
13-035	투자실무가이드 - 네덜란드 -	2013.8
13-036	2012년 글로벌 FDI 동향	2013.8
13-037	2013 U턴기업 지원 종합가이드	2013.9

13-038	신흥국 제조업 지도 : 어디서? 무엇을?	2013.9
13-039	신흥국 온라인 유통시장 동향과 진출방안	2013.9
13-040	글로벌 창업 종합가이드	2013.3
13-041	신흥국 진출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Volume Zone & Reverse Innovation	2013.9
13-042	2012년도 Invest KOREA 연차보고서	2013.10
13-043	러 물류-운송 서비스 시장동향 및 전망	2013.9
13-044	2013년 주요 투자유망국(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 미얀마) 투자환경 비교	2013.10
13-045	신흥국 프랜차이즈 시장동향과 진출방안	2013.10
13-046	터키 투자실무가이드	2013.10
13-047	UN근무 30년 경력자가 들려주는 UN조달 쉽게하기	2013.10
13-048	제 10회 대전 국제 농기자재 및 우수종자 전시회(TAMAS 2013) 디렉토리	2013.10
13-049	2013 Labor Law Guide for Foreign Investors	2013.10
13-050	2014년 해외시장 진출 호부진 품목	2013.10
13-051	국제 CSR 동향분석 및 시사점	2013.10
13-052	2014년 해외 수출유망 품목 및 국가 현황	2013.11
13-053	러시아 바이오매스 프로젝트 예비조사 보고서	2013.11
13-054	2013 외국인투자기업경영환경애로조사	2013.11
13-055	2013 외국인투자기업생활환경애로조사	2013.11
13-056	2013 외국인투자기업 투자환경조사 ~15개사 외투기업 심층인터뷰 결과~	2013.11
13-057	Invest KOREA Annual Report 2012	2013.11
13-058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의 수출성공시대를 향한 힘찬 첫걸음	2013.12

□ 설명회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13-001	2013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13.1
13-002	2013 중국3대 유망시장 설명회	2013.1
13-003	2013년 전략시장 협력 파트너쉽 포럼	2013.1
13-004	Iraq-Korea Business Forum	2013.3
13-005	Reshoring to KOREA - 국내 U턴기업 지원제도 및 투자환경 설명회 -	2013.4
13-006	2013년 제1회 차이나 커뮤니티 세미나	2013.3
13-007	Global Project Plaza 2013	2013.5

13-008	2013 철도 기자재 조달 플라자 Railway Procurement Plaza 2013	2013.5
13-010	2013년 유럽 주요국 대형유통망 현황 조사	2013.6
13-011	선진 ESCO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13.6
13-012	Europe Business Week 2013 - 유럽 유통망 진출전략 설명회 -	2013.6
13-013	Europe Business Week 2013 - 유럽 공공조달 진출전략 설명회 -	2013.6
13-014	한-미얀마 비즈니스 포럼	2013.6
13-015	2013 국제금융기구(MDB) 조달 설명회	2013.6
13-016	베트남연안국 비즈니스포럼	2013.7
13-017	이란 대체시장 설명회	2013.7
13-018	'중국新도시화 정책과 활용전략' 설명회 Korea-China Biz Plaza 2013	2013.9
13-019	신흥시장 주요 트렌드 및 진출방안	2013.9
13-020	자동차, 프로젝트 분야 진출전략 세미나	2013.9
13-021	ICT, 유통업, 의료서비스업 분야 진출전략 세미나	2013.9
13-022	중남미 새로운 기회: Post Chavez, 그리고 태평양 동맹	2013.9
13-023	CIS 대형 유통망 진출전략 세미나	2013.9
13-024	아프리카 진출 파이낸싱 전략 세미나	2013.9
13-025	아시아 온라인 유통망 진출전략 세미나	2013.9
13-026	신흥시장 투자진출 리스크와 기회 포럼	2013.10
13-027	Korea-Iraq Rebuilding Project Plaza	2013.10
13-028	2013 UN 조달 설명회	2013.10
13-029	Chemical Innovation with Korea 포럼	2013.10
13-030	중국 특화 지역개발 설명회	2013.10
13-031	2016 리우 올림픽 조달 설명회	2013.11
13-032	해외 CSR 사업화 포럼	2013.10
13-033	한국-폴란드 경제협력포럼	2013.10
13-034	Asia Water Development Project Plaza	2013.11
13-035	한국-라오스 비즈니스 포럼	2013.11
13-036	주요3국 지재권분쟁 대응방안 설명회	2013.11
13-037	Taking Off Prepared Semiconductor	2013.11
13-038	MENA Project Partnership	2013.12
13-039	Korean Medical Healthcare Industry Insight	2013.12
13-040	선진시장 소비트렌드 및 진출전략 설명회	2013.12

작성자

- ◆ 카이로무역관 김효근 과장
- ◆ 신흥시장팀 안성희 과장

Global Market Report 13-072

MENA지역의 제조업 MEKA, 이집트

발행인 | 오영호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3년 12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전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13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